

생명의 말씀과 빛 요일 1:1-10

중요한 세가지 이야기 하겠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이다. 오늘 말씀을 이어 나갈 때 중요한 핵심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중요한 의미를 주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다. 예수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나온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로 사도 요한은 많은 메시지를 남긴 증인이다. 오늘 요한 일기삼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한 중요한 증인이다.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요 13:23절에 그 증거가 나타났다. 오늘 제가 본문 요한 1서 1-10절로 선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1-5장까지를 이야기 할 것이다. 요한 1서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때 모든 흑암과 더러운 저주가 이 생명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2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3장은 우리가 잘 아는데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셨다는 것이다.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는 시대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영지주의를 이길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말한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일 5:11-13절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이다. 구원을 받은 증거는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이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을 강조했다.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다. 그렇다고 사랑을, 행위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인 것이다. 요한 사도가 살던 그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후 얼마 되지 않은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고 흔들린 사람들이 많았다. 제 일 영향을 주는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것이다. 얼핏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 한다. 결정적인 것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이다. 그래서 때를 지어서 교회를 나갔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서에 우리라는 표현과 그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요한이 쓴 우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답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고 간간 사람들은 그들이다. 그들은 곧 적그리스도가 되어 버렸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왜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누릴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흔히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못 간다고 하시는 분도 많다. 그것은 전도의 일부분이지 전도자의 모든 것은 아니다. 전

도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현장에서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남 속에 사람을 붙여 주신다. 그 사람을 살리면 되는 것이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전도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생명의 말씀에 우리들 안에 자리 잡히기 바란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언약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바란다. 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기 바란다. 영유아들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기 바란다.

1.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였다.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되게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한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롬 6:23절에도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였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을 누구에게 치루냐? 하나님께 치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죄의 삯으로 죽어야만 되는 것이다. 절대로 사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것이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왕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동화속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 렘넌트들에게도 창세기 3장을 전할 때에도 진지하게 전한다. 자칫 잘못하면 어릴 때, 그것은 재미난 성경동화라고만 각인되면 영적 문제 올 때 답이 없다. 창세기 3장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지금 개인과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의 실제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심각성을 모르면 너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엇나가게 되어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세상 지식과 윤리와 도덕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창세기 3장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죄에 빠져 버린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인간을 속여서 저주 속에 끌고 들어간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면 그냥 운명과 팔자려니 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 현장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내가 해결할수 없는 것이구나, 경찰이나 대통령이 해결할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그 답을 주신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답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계속적인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 답을 어서쁘게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되냐고 따질수도 있다. 나는 언제쯤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냐고 말한다. 사실 내가 그랬다. 나의 인생이 20세에 교회를 처음 다녔다. 구원의 체험도 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도 안 보였다. 교회를 다니면 비전

도 생기고 방향도 생긴다는데 아무것도 나에게서는 안 보였다. 열심히 기도했다.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 끝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몇 년동안 했다. 그런 과정속에서도 진짜 행복은 있지 않았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일이 막혔다. 나이가 그때 당시에 30에 가까워지니 장가를 가야 하는데, 내 상황이 안 좋으니 얼마나 기도를 했겠는가?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종교생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했다. 급기야는 은혜 받아서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다. 신학교 갔으니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이 성경 한번도 안 읽으면 되겠냐 하고 정신없이 7-8번 읽은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나에게서는 참된 행복은 없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먼저 다락방을 접한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 때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했다. 지하철에서도 전도했다. 그 일을 몇 년동안했다. 그래서 지하철에 탈때마다 부담이 생겼다. 그러다가 시장에 갔을 때에도 메가폰을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쳤다. 지금 같아서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라고 했을텐데, 그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다. 어느 날은 버스에 탔을때에도 차 안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상황속에서 다락방을 하던 내 동기를 만났다. 그 친구가 전도가 잘되냐고 물어봤다. 속으로 화가 났다. 안되는 것 알면서 물어본 것 같았다. 그 친구는 현장에도 안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마음속에 미움도 생겼었다. 그 친구가 만나서 하는 말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거라고 하였다. 그 말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쩐지 안되더라. 진작좀 알려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미웠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 때에 처음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인지 알았다. 예전에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재미있는 성경 동화로만 전달했었다. 너무 회개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저를 전도자로 써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를 인도하실줄 믿는다.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와야 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된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과 상관없이 오려면 다르게 와야 하는데, 그것이 여인의 후손이다. 지식인들은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수 있냐고 한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것이라고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담의 후손이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원죄 영향을 받지 않은 존재로. 그래야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의 그 어떤 훌륭한 영웅도 사단을 이긴 자가 없다. 그것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하였다. 창세기 3:15절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절대 해결할수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이다. 죄의 저주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때에만 기회가 있다.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으므로 생을 다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다. 딤후 2:4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

였다. 딤후 2:15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다. 롬 10: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우리는 다민족이라고 한다. 다민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제자들이다. 누구보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흑시라도 오해하지 않고 상처 받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것이 어릴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 몰라서 운명에 빠져 있고 저주의 대물림을 겪고 있다. 빠져 나오지 못하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날 답을 내야 한다.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 6, 11장이 각인되어서 그렇다. 나 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각인되어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해결이 안되니까 분노하는 것이다. 말로 폭발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연쇄적이어서 내가 그러면 상대방은 갑절로 폭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온 이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차분하게 복음 누리는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어둠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고 알려주셨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서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빛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 보게 되었다. 여전히 고통에 둘러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것이다. 복음이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미움과 판단과 정죄를 없애야 한다.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 6, 11장 문제가 들어와 버렸다. 거기에 빛이 오셨다. 그 누구도 판단할수 없다. 정죄할수 없다. 판단과 정죄는 죽이는 것이다. 그것으로 절대 살아날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살린다. 빛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 빛에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으면 기다려라. 사람들마다 다 자녀될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히려 나의 경험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약속은 성취된다. 어둠은 떠나갈 것이다. 이 빛은 영광, 창조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 빛을 누리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면 어둠은 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 생명, 능력, 치유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는다.

이제 빛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인의 시스템을 세우라. 가정예배, 현장 지교회로 가정의 시스템도 회복해라. 이미 세워진 시스템 속에 들어가도 좋다. 빛을 누려야하며 이 빛은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이다. 이 속에 들어가면 치유된다.

결론

태초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하늘의 권세의 축복을 주셨다.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누리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않고 그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